

사목 공지

축영환

- 예비자 입교식: 2월 16일(주일) 10:30am 미사 중
- 환영식: 10:30am 미사 후, 가브리엘 방

병자 영성체: 1월 15일 (수) 10:00am

성소후원 특별헌금: 1월 19일(주일)

주님 봉헌 축일 초 축성

- 2월 2일(주일) 10:30am 미사 중,
- 일년 동안 사용할 봉헌초 성물부에서 신청 및 접수
- 제대용: 9불, 개인용: 6불

지구장 임명: 1월 12일(주일) 10:30am 미사 중

- 1지구-원광현 마르코 2지구-윤경면 미카엘(유임)
- 3지구-윤진숙 모데스타 4지구-서용호 마태오
- 5지구-최경호 루치아노(유임) 6지구-천순자 마리아
- 7지구-박재혁 헨리코 8지구-유시환 베드로
- 9지구-김순희 루시아 10지구-양명숙 모니카
- 11지구-최연희 안젤라 12지구-박예라 카타리나

단체장 임명

- 복사 자모회: 김현미 바울라
- 주일학교자모회: 윤희선 율리안나

사목 공지

혼인 교리강좌 (년2회)

- 일시: 2월16일(주일) 12:30pm-6:00pm, 가브리엘 방
- 대상: 2월-8월까지 혼인을 준비하는 결혼 예정자

2014년, 새해 맞이하여 전교우 성경 읽기

- 2014, 1월 1일부터 전교우 영적, 내적 성장을 위하여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안내 유인물 참조)

우리 본당이 가치관을 세우고 확립해야 할 덕목들

1. 서로 존중하고 칭찬을 생활화 합시다.
5.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2.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합니다.
6.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3.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합니다.
7. 인간적인 천교워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4.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8. 서로를 해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탄 판공후 성사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드니 대교구 한인 천주교회 주보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SYDNEY

주보 성인: 한국 순교성인과 성 스타니슬라오

발행일: 2014년 01월 12일

주 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http://www.sydneymcc.org info@sydneykcc.org
사 무 실: 8756 3333(대표번호) 8756 3334
8756 3335(FAX)
사 제 관: 8756 3330(주임신부), 8756 3331(제1보좌신부)
8756 3332(제2보좌신부), 9558 3498(고해신부)
수 녀 원: 8756 3336
주임신부: 김동규 미카엘 사목회장: 정영수 사도요한

평 일	토요일	주 일
월: 7:30pm 화: 7:00am 수: 7:30pm 목: 9:30am 7:30pm 금: 9:30am	9:30am(신심미사) (첫째주, 둘째주) 4:00pm(초등부) 5:30pm(중고등부) 7:30pm(청년부)	7:00am 9:00am 10:30am(교중) 5:00pm(City) 5:30pm(영어) 7:30pm

주님 세례 축일

제1독서: 이사 42,1-4.6-7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 3,13-17

제2독서: 사도 10,34-38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전례성가: 입당: 1 / 봉헌: 221, 220 / 성체: 165, 164 / 파견: 479

화답송: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일반 공지

11지구 야외모임: 1월 1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장소: Silverwater Park(순교자 현양대회 장소)

꾸리아 평의회: 1월 18일(토) 7:30pm 미사 후

달력의 스마일 틀니치과 전화번호를 (8544 1770) 으로 정합니다.

단체모임

- 쌍두스 성가대: 1월 12일(주일) 9:00am 미사 후
- 전례해설단: 1월 12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연령회: 1월 12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요셉회: 1월 12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울뜨레아: 1월 12일(주일) 12:30pm
- 요한회: 1월 1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안나회: 1월 1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전례독서단: 1월 19일(주일) 10:30am 미사 후
- 글로리아 성가대: 1월 19일(주일) 10:30am 미사 후

금주 성경 말씀

월	화	수	목	금	토	주
마르 10-12	마르 13-14	마르 15-16	루카 1-5	루카 6-7	루카 8-9	루카 10-11
묵상 말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루카 6. 43-45)						

오늘의 중식 메뉴: 알밥(마리아 회)

2013' 상호존중 캠페인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감사헌금	기 타	이월금	수 입	지 출	잔 액
\$ 15,299.35	\$ 390.00		\$ 91,936.71	\$ 15,689.35	\$ 24,283.62	\$ 83,342.44

감사,기도, 전출입

감사: 중, 고등부 캠프를 위해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

선종: 망자 이용희 수산나

- 망자와 유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입교우: 함태순 세실리아 가족, 이기풍 루까 가족

주일 봉사

날짜	12,19/1	26,1,2/2	9,16/2	23,2,2/3
지구	8지구	9지구	10지구	11지구
전례, 커피, 청소 9:00am, 10:30am 미사 중				

주님 공헌 대축일 미사 참례수: 1,885 명

평일미사(독서 복음)

	제1독서	화답송	복음	영성체송
13일(월)	1사무 1,1-8	주님,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나이다.	마르 1,14-20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14일(화)	1사무 1,9-20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마르 1,21-28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 게 하소서.
15일(수)	1사무 3,1-10.19- 20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마르 1,29-3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무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 물 주시고, 굶주 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16일(목)	1사무 4,1-11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마르 1,40-45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17일(금)	1사무 8,4-7.10-22 꺾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 다.	마르 2,1-12	주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18일(토)	1사무 9,1-4.17- 19; 10,1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 다.	마르 2,13-17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시옵나.

생활 속의 복음

“주님 세례 축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 속에 세상을 살아갑니까? 저는 명동에 살고 있습니다. 명동거리는 가게마다 물건을 팔기 위해 큰소리로 노래를 틀거나 여러 가지 선전을 해대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화조차 하기 힘듭니다. 부디 살면서 작은 소리로도 의사전달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자연의 소리들을 다시 들으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빗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풀벌레 소리, 눈이 쌓이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까지…. 인간의 고함이 멈추고,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소리도 함께 들릴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치고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공정을 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한 절망과 좌절의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사상, 그리고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무서운 테러와 전쟁,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허락하지 않는 선진강대국들의 견제구조, 그로 인해 생기는 국가 차원의 우울증과 정신질환, 그리고 수많은 자살과 범죄들.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원하십니다. 기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바른길을 가라고…. 개개인의 성실과 정직이 거대하고도 불의한 세상의 폭력을 끝내는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느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한 분 계셨지요.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이 이제는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길입니다.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연민과정이 가득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인생길, 그 길이야말로 지금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부정하고도 절망스럽기까지 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 길입니다.

고찬근신부
명동대성당 주임

예비자 교리			버스 운행 시간표		
8월반	주 일	10:10am (전 스테파노 신부님)		리드کم 역 ⇨ 성당	성당 ⇨ 리드کم역
9월반	토요일	5:00pm (주임 신부님)	토	오후 3시 10분	오후 6시 40분
2월반		추후공지	주 일	오전 8시 20분, 8시 45분 오전 9시 50분, 10시 15분	오전 9시 미사 후 오전 10시 30분 미사 후

함께 기도합시다

권영해 베네딕토
김금선 마리아
김광호 게오파스
김영복 세실리아
김연심 프란체스카
김지현 프란체스카
김중훈 돈보스코
김태균

김태영
김환영 마르타
김명훈 베드로
고일순
노수진 베로니카
박인희 베로니카
석송 베드로
신병각 가브리엘

안경수 필립보
여수레 마리아
이래교 안젤라
이성준 안드레아
이애자 오티리아
이억석 바오로
이영민
이은정 오티리아

이용수
이중윤 라우렌시오
이혜영 프란체스카
유기현
임순자 마리아
임혜정
은동현 유스티노
장춘자

전인혜 줄리아
정명화
정 바실리오
정영희 켈마
정현옥
정현주 까리파스
조규정 이레네오
최춘자 안나

한 폴
황선웅 크리스티나
최성규 요한

- 기도지향을 기재하여 봉헌함에 꼭 넣어 주세요. -
(이름과 세례명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첫째주에 새로 기재합니다.)

【사도신경 해설 49】“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7) 교회의 사명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고 뽑으시는 것은 우리를 믿고 사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믿음과 사랑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다. 이 선택은 우리를 위한 특권만이 아니다. 선택의 주된 목적은 파견이다. 사명을 위하여 하느님은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으신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마르 3,13) ‘사도’로 선택하셨는데 ‘파견된 자’라는 뜻이다. 파견은 곧 사명이다. 교회가 태어난 것은 파견되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명 수행이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과 사제 및 예언자를 뽑으셨다. 이들은 하느님의 특수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뽑혀 파견된 자들이다. 그들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왕은 통치, 사제는 제사, 예언자는 말씀의 중개자이며 봉사자들이다. 하느님께서 왕을 통하여 백성을 다스리시며, 사제를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다.

백성의 이 세 가지 중개역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고 완성되었으며 또 교회가 이어받고 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사제,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생애 초기에 예언자로서의 면모가 뚜렷하였다.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을 보고 군중들은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났다.”고 감탄하였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예언자로 처신하셨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다.” (루카 13,33) “성전 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마태 2,6)는 말씀이나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요한 2,19)는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에 봉사하기로 불린 사제임을 나타낸다. 그분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 새 성전이 되고자 하셨다.

수난하고 죽고 부활한 몸이 새 성전이 됨으로써 ‘유일하고 완전한 중개자’ 사제가 되신다. 최후 만찬 중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도 사제로서의 신원을 드러내신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자처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요한 19,36.37) 십자가 명패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그분이 온 세상의 왕임을 공표한 것이다. 세상 통치자와는 달리 그분은 겸손으로 봉사하신 왕이시다. “민족들을 지배한 임금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루카 22,26)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 직분에 참여한다. 교회는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교적’이다. 그리스도는 온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교회를 파견하셨다. 교회의 선교사명은 예언적, 사제적, 왕적으로 수행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19) 이 세 직분은 선교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세 직분으로부터 가르치는 직무(교도직), 거룩하게 하는 직무(성화직), 다스리는 직무(사목직) 등 세 직무가 나온다. 교도직은 말씀을 전하는 일, 성화직은 기도와 성사를 통해 교회 자신과 세상을 성화하는 일, 사목직은 세상의 발전을 위해 섬기는 일이다. 교회가 사명을 위해 파견된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파견으로 이 세상 안에 오기 시작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며 싹’으로 세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구원의 보편적’ 성사로서 역할을 다한다.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천교의 표징이며 도구가 된다. [2009년 5월 3일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가톨릭마산 7면]

연령회 문의: 0427 995 488		버스 봉사자		차량 문의 : 0414 488 700	
2호차 (리드کم) - 토요일 봉사		1호차 (캄시)	2호차 (캄시)	3호차 (이스트우드)	4호차(리드کم)
03:10pm 리드کم, 06:40pm 성당 출발		주일 - 09:30 캄시 출발	주일 - 09:30 캄시 출발	주일 - 09:30 출발	주일
01월11일: 임준홍 베드로, 김예환 스테파노 01월18일: 하준성 루카, 이승준 에드윈 01월25일: 최중문 아오스탕, 김예환 스테파노 02월01일: 장기영 토마스, 이정근 사도요한 02월08일: 임준홍 베드로, 김예환 스테파노		01월12일: 고영식 파스칼 01월19일: 정선주 마르코 01월26일: 양재봉 다니엘 02월02일: 02월09일: 고영식 파스칼	01월12일: 유시환 베드로 01월19일: 신영대 요셉 01월26일: 김영권베네딕토 02월02일: 최상현 베드로 02월09일: 유시환 베드로	01월12일: 최홍래실베스텔 01월19일: 김진태 앤드류 01월26일: 최홍래실베스텔 02월02일: 최영수 율리오 02월09일: 최홍래실베스텔	01월12일: 양명숙 모니카 01월19일: 최 안젤라 01월26일: 서용호 마테오 02월02일: 문석주 필립보 02월09일: 양명숙 모니카